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로덴나무 그늘교회

날짜 : 2023.03.05

시간 : 오전 11시

장소 : 친구사이 사정전

예 배 순 서

예배의부름

사 회 자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다 같 이

대 표 기 도

미가

성 경 봉 독

시 1:1~6

다 같 이

찬 양

다비드 찬양대

설 교

복 있는 사람, 푸르른 사람

김근주 목사

봉 헌

다 같 이

축 도

김근주 목사

소 식

사 회 자

파 송

일어서서

*

예배시작 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부름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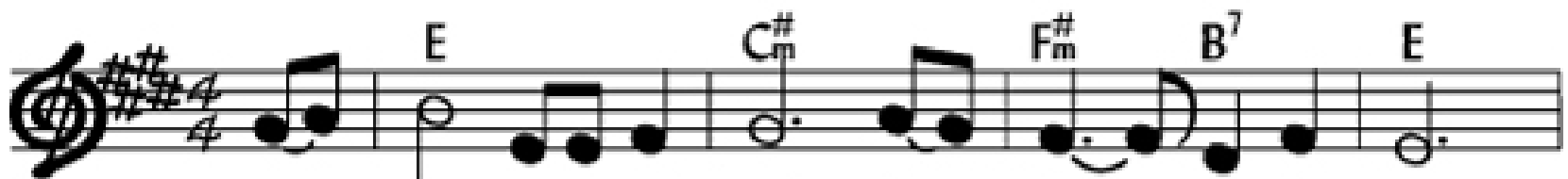
아멘

찬양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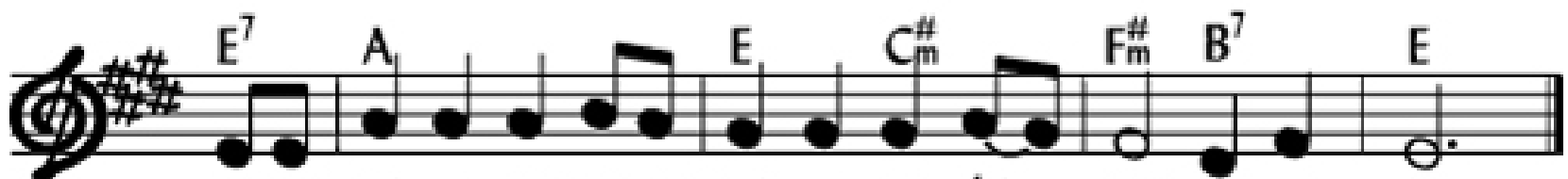
박윤호



1. 너- 는 시냇가 에 심- 운 - 나 무 라
2. 주의 시 절을 좇 아 구원 열 매 맺 으 면



하나 님 의 사랑 안 에 믿 음 뿌 리 내 리 고
주의 영 화 로운 빛 - 너를 보 호 하 리 니



주의 뜻 대 로 주의 뜻 대 로 항 - 상 사 세 요
주의 뜻 대 로 주의 뜻 대 로 항 - 상 살 리 라

Copyright (C) 박윤호 . Used by Permission.

대표기도

미리

성경봉독

얇은 글씨는 사회자가, 굵은 글씨는 회중이 읽습니다.

시편 1:1~6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4.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쪽정子和 같다.
 5.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 (다 같이)
6.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찬양

다비드 찬양대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252장)

설교

김근주 목사

복 있는 사람, 푸르른 사람

봉 헌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정성실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
너의 좌편에 그늘 되시니 -
낮의 해와 밤의 달 - 도 너를 해치 못하리 - 하나
그가 너를 지키시리 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 다

Copyright (C) 1996 정성실.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일, 보금자리, 사랑, 미지정)

카카오뱅크 7979-72-04893 ㄴㅇㅇ

축도

김근주 목사

소식

1.

오늘 예배 후에 월례회와 조모임이 있습니다.

2.

우리 곁의 초록나무, 고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가
3월 11일 토요일 4시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3.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평소보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는 마음으로 지내보길 권면합니다.

4.

약정헌금을 진행 중입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PrFPWJ3KruK3Yy497>

파 송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일 어 서 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